

끝내...강진 야산서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발견

도암면 매봉산 정상 인근 용의자 차량 목격지점서 1km 9일만에 체취견들이 찾아내 험준한 산길 홀로 운반 의문 경찰, 공범 여부도 수사

24일 오후 2시50분께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소재 야산을 수색하던 체취견 8마리가 갑자기 반응을 보였다. 400여m를 내달려간 체취견들이 갑자기 멈춘 뒤 풀층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전국 7개 경찰청에서 핸들러(명령자) 경찰관과 함께 파견된 체취견들이 수색 8일만에 실종됐던 이모(16·고교 1년)양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찾아낸 것이다.

경찰청은 실종된 이양의 행적이 묘연하자, 매장 사체 발굴용으로 훈련된 벨기에산 말리노이즈 4마리와 셰퍼드 4마리 등 총 8마리의 체취견을 투입했다.

체취견과 함께 이양의 사체를 찾아낸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계 핸들러인 최영진 경위는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과 용의자 김모씨의 차량이 목격된 야산 쪽에서 수색을 시작해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풀층에 있는 이양을 발견했다"면서 "체취견은 땅속 1m 깊이에 묻힌 사체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종 9일만에 시신으로 발견=지난 16일 강진군에서 집을 나간 이후 행방불명(광주일보 6월 19일자 6면)됐던 이 양으로 추정되는 번사체가 발견됐다. 실종 9일만에 849명, 열가지 장비를 갖춘 헬기 1대, 드론 2대, 체취견 10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날 체취견을 동원해 수색하던 도중 산 정상 너머 내리막길 우거진 숲 속에서 이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24일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인근 매봉산에서 경찰들이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강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경찰은 시신의 키와 체격이 실종된 이양과 비슷하고, 주변에서 화장품 등이 발견됨에 따라 이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위해 강진으로 원으로 이송했으며, 발견 장소 주변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현장 감시에 들어갔다.

시신 발견 장소는 야산으로 통하는 지석리 마을길 끝자락에서 도보로 1시간 거리이며,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지석리 마을길 끝자락은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께 이양 아버지의 친구인 용의자 김모(51)씨의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목격된 장소다. 시신 발견장소와 1km 떨어진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2시간 40여분 동안 머물렀다.

김씨는 이양 실종 다음날인 17일 새벽 자신의 집 근처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양 발견 왜 늦어졌나=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양이 지석리 인근에 있을 것으로 보고 대규모 수색을 진행했지만, 시신 발견이 늦어진 것은 범행을 숨기려는 한 김씨의 치밀한 행적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씨는 16일 오후 2시께 강진군 성전면 이양의 집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이양을 태우고 15분 후 지석리에 도착한 것으로 CC-TV 분석결과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를 끄고 다니고, 휴대전화마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놓고 외출한데다, 방범용 CC-TV가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등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경찰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양 시신이 발견된 지점도 지석리쪽이 야

■ 실종 여고생 시신 발견 지점



산 정상을 넘어가야 하는 계리리 방면이었다. ◇수사 급물살...사인 규명 주력=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이양이 스스로 산 정상까지 이동했는지, 숨진 뒤 옮겨졌는지 등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경사 70도에 이르는 험준한 산길에서 김씨가 홀로 시신을 옮겼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공범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강진=김한영·남철희 기자 young@

■ 시간대별로 본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 | |
|---------------|--|
| 12일 | 이모(16)양, 아버지와 용의자 김모(51)씨의 식당에서 식사 |
| 16일 오후 2시 | 강진군 성전면 이모양 지택 인근서 김씨 에쿠스 차량 발견 이모양 "지금 식당에서 만나서 해방가고 있다" 친구에 메시지 연락 |
| 16일 오후 2시15분 | 도암면 지석리 앞 도로 CC-TV에 김씨 차량 찍힘 |
| 16일 오후 3시20분 | 지석마을 야산에서 김씨 차량, 주민에 의해 목격 |
| 16일 오후 4시30분 | 지석마을에서 이양 휴대전화 전원 꺼짐 |
| 16일 오후 4시55분 | 지석리 앞 도로에 강진 방면으로 향하는 김씨 차량 다시 찍힘 |
| 17일 새벽 12시57분 | 경찰, 이양 실종신고 접수 |
| 17일 오전 6시17분 | 김씨, 지택 인근 공사장서 목매달아 숨진 채 발견 |
| 24일 오후 2시53분 | 지석리 야산서 이양 추정 번사체 발견 |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은 강사 책임”

대법, 체험업체 대표 무죄 확정

스쿠버다이빙 체험 사업자는 안전교육 소홀로 발생한 교육생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2015년 7월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생은 강사를 따라 급하게 바다 밑으로 내려가다 알 수 없는 사유로 목이 끊어지며 수중에서 구조돼 해변으로 이동한 교육생은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은 정씨가 업체 대표로서 교육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즉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정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스쿠버다이빙 관련 자격 등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를 고용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해수욕장 실종 중학생 6일만에 의사체 발견

고흥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중학생이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8시 37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억금해수욕장 남서쪽 200m 해상에서 실종된 A(15)군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억금항으로 들어오던 어장관리선이 A

군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4시 54분께 두 살 터울인 친형과 함께 물놀이하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

형은 주변에 있던 안전관리요원에게 구조조달을 A군에 실종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민간구조선, 헬기, 구조대원 등을 투입해 주변 바다를 수색해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50만원 빛 독촉에 이웃 할머니 살해 60대女 무기징역

채무 문제로 이웃인 80대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작업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여·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갖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내리치고 찌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범행 후에도 홀로 사는 피해자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을 치밀하게 숨겼으며 훔친 돈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격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 범행은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고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3월 광주시 북구 A(여·81)씨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지 9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 나선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발견됐다. 손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 독촉을 받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편 탄원에...성기 절단 아내 집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절창행은 모면.

○24일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9)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해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55)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할촌 관계로 지냈고, 10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새롭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동지

광주일보

창간 100주년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요구조건: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2018타경 50505 | 1 | 광양시 마동 산17-15 1663㎡ | 임야 | 25,799,300 | 일괄매각, 목축1대 동소 산17-18 287㎡ [물건번호1:최동환지분 298/1950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 제한] |
| 2018타경 50680 | 1 | 순천시 조곡동 274-19 101㎡ [강화희지분2] 9번부, 매각되지치외잔물임 | 대 | 7,481,600 |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

2. [아파트]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2018타경 1251 | 1 | 여수시 문수1길26, 108동 8층 801호 [문수동, 피오레아파트] 84,949㎡ | 아파트 | 300,000,000 | 300,000,000 |
| 2018타경 50321 | 1 | 광양시 광창로70, 202동 6층 621호 [중동, 아파트 성호2차아파트] 39,86㎡ | 아파트 | 47,000,000 | 47,000,000 |
| 2018타경 50802 | 1 | 여수시 소호로649, 205동 10층 1006호 [안산동, 부영맨션] 84,92㎡ | 아파트 | 128,000,000 | 128,000,000 |
| 2015타경 4204 | 1 | 부산광역시 동구 동래동1 1169-1 420㎡ [문수동, 피오레아파트] 84,949㎡ | 대 | 12,260,160 | 12,260,160 |
| 2018타경 50628 | 1 |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80-2 393㎡ [박용진 대 산지380/393전부] | 대 | 34,360,000 | 34,360,000 |
| 2018타경 1312 | 1 | 여수시 덕흥2길55, 4층 402호 [덕충동, 대 광빌리] 102,54㎡ | 대 | 124,000,000 | 124,000,000 |

3. [대지/임야/전답]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2017타경 12223 | 2 | 구례군 간전면 수월리 483-7 124㎡ | 전 | 1,024,000 | 1,024,000 |
| 2018타경 1015 | 1 |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113-25 64607㎡ [김영자지분29325/75247전부] | 임야 | 143,516,994 | 143,516,994 |
| 2018타경 1329 | 1 | 고흥군 포두면 남정리 253-1 228㎡ | 대 | 8,892,000 | 8,892,000 |
| 2018타경 1558 | 1 | 고흥군 포두면 옥광리 산129-1 1431㎡ | 임야 | 16,337,200 | 16,337,200 |
| 2018타경 1862 | 1 | 광양시 도이동 613 1468㎡ [정병우지분473/1468전부, 수목제외] | 전 | 113,520,000 | 113,520,000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2017타경 12223 | 1 | 구례군 간전면 수월리 483-1 516㎡ | 전 | 56,859,300 | 56,859,300 |
| 2017타경 54388 | 1 | 여수시 신덕동 579 113㎡ | 대 | 132,158,200 | 132,158,200 |
| 2018타경 456 | 1 | 여수시 평여동 999-5 2523.7㎡ | 관장용지 | 2,686,060,540 | 2,686,060,540 |
| 2018타경 1800 | 1 | 순천시 동외동 164-21 330㎡ | 대 | 701,668,000 | 701,668,000 |
| 2018타경 2209 | 1 | 순천시 도서관길 10 1층 182.39㎡ | 여관 | 263,514,500 | 263,514,500 |

● 공고된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매각대상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